

손흥민 '꿈의 무대' 주인공 될까

2일 리버풀과 챔스리그 결승전
한국선수 두번째 결승 무대
우승팬 '월드 클래스' 증명 기회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27·토트넘)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6월 2일 새벽 4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원대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리는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리버풀(잉글랜드)과 격돌한다. 토트넘은 아약스(네덜란드)와의 4강에서 1차전 0-1로 졌다가 원정 2차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두고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 사상 처음으로 '꿈의 무대'인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클럽이던 토트넘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부임 이후 상위권 팀으로 올라선 것은 물론 첫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까지 일궈냈다. 이 때문에 팬들은 토트넘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성장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관심을 끄는 건 단연 손흥민의 활약이다.



손흥민(토트넘-가운데)이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팀 훈련 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었던 박지성이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나선다. 박지성은 2008-2009시즌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아시아 선수 최초 결승전 출전 기록을 남겼다. 손흥민은 한발짝 더 나아가 득점과 우승까지 정조준한다. 그는 각종 대회에서 20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주축 공격수 역할을 해냈다.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의 8강 1차전 결승전, 2차전 멀티골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결승으로 가는 길의 발

판을 놓은 바 있다. 결승전은 이런 손흥민의 활약에 정점을 찍을 기회다. 손흥민은 한 골을 추가하면 2016-2017시즌 남긴 개인 한 시즌 최다 골(21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멀티골을 터뜨린다면 새 기록이 탄생한다. 독일, 영국에서 꾸준히 활약해왔음에도 아직 소속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어 이번 결승은 손흥민에게 첫 우승 트로피와 함께 진정한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을 계기도 될 수 있다. 다만 간판 골잡이 해리 케인의 부상 복귀는 손흥

민에게도 변수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은 제가 아니라 감독님이 결정할 일이다.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1위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이상 22골)가 버티 리버풀과의 승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막바지까지 맨시티와 우승 문턱에서 경쟁한 리버풀의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 리버풀은 바르셀로나에 1차전 0-3 완패를 2차전

4-0 완승으로 뒤집는 대역전극으로 2년 연속 결승에 올라 2004-2005시즌 이후 14년 만에 유럽 왕좌 탈환을 꿈꾼다. 유러피언컵을 포함해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린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격돌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2007-2008시즌 맨유-첼시 이후 1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팀 간 결승전이 성사됐다. 특히 두 팀 모두 4강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결승에 오른 터라 '기적과 기적의 대결'로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광주FC, 펠리페 앞세워 1위 탈환 노린다

6월 2일 FC안양과 14라운드
승점 확보 맨 1위 복귀



펠리페(광주FC)가 지난달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5라운드 FC안양전에서 헤더슛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가 1위 탈환을 위해 안양으로 간다. 광주는 오는 6월 2일 오후 7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과 하나원큐 K리그2 2019 14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K리그 유일할 무패팀(7승 6무)인 광주의 선두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가 앞선 13라운드 아산전에서 0-0 무승부로 1점을 거두는 데 그쳤지만, 부산아이파크가 전남전 승리도 승점 3을 보태며 승점 27로 동물을 이겼다. 그리고 다득점에서 앞선 부산이 광주를 따돌리고 1위로 올라섰다. 이로써 광주는 78일 만에 리그 선두 자리를 내주고 추격자의 입장이 됐다. 아쉬움은 있지만 광주는 '1위 수성'의 부담감을 털고 광주만의 플레이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4월 13일 부산이 2위로 올라선 이후

승점 1-2점 차이로 박빙의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부가 기록됐다. 광주가 승리하면 부산도 승리했고, 비기면 부산도 비겼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경기 연속 무승

원투펀치 살아난 KIA '6월 반전 희망'

'원투펀치'의 이닝이 KIA 타이거즈 반전의 특급 무기다. KIA는 시즌 초반 기대했던 선발진과 베테랑 야수들의 동반 부진 속에 어려운 봄날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7연승에 성공하는 등 KIA는 달라진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원투펀치의 이닝이 있다. KIA는 올 시즌 '에이스' 양현종에 이어 터너를 개막 2연전에 투입하면서 원투펀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양현종이 6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고, 터너는 1회부터 난타를 당한 끝에 5이닝 8실점(7자책점)을 남기

며 허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등판 날마다 고개를 숙였다. 양현종은 시즌 7번째 등판이었던 지난 5월 2일 삼성전에서 뒤늦게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승리가 나오기까지 6경기에서 양현종은 30.1이닝을 소화해 8.0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패만 기록했다. 터너의 KBO리그 첫 승도 7번째 도전 끝에 기록됐다. 터너는 4월 30일 역시 삼성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기다렸던 승리투수란 이름을 올렸다.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6경기에서 양현종보다는

양현종·터너 초반 부진 딛고 부활
이닝이터 면모 살리고 불펜부담 줄여

조금 많은 32.1이닝을 소화했지만, 선발로 기대하는 평균 이닝에는 미치지 못했다. 워밍업에 시간이 걸렸던 두 사람은 최근 '원투펀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26일 KT와의 경기에서 6회까지 58개의 공만 던지면서 완봉 페이스를 보였다. 아쉽게도 7회 1사 2루에서 나온 3루수 최원준의 실책과 함께 완봉 도전이 실패했지만, 양현종은 94개의 공으로 8회를 책임져주며 이닝을 '이닝 이터'의 면모를 보여줬다. 양현종은 지난 8일 두산전 7이닝을 시작으로 최근 4경기에서 29이닝을 책임졌다.

지난 29일에는 터너가 완봉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닝까지 터너의 도전이 이어졌다. 3-0으로 앞선 9회에도 등판한 터너 역시 최형우의 실책성 플라이로 아쉽게 완봉은 놓쳤지만, 27개의 아웃카운트를 홀로 책임지면서 팀의 첫 완투승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3경기에서 터너가 막아준 이닝은 22이닝. 초반 부진을 털어낸 두 사람이 착실하게 이닝을 더해가면서 팀의 승리로 쌓여가고 있다. 선발투수의 이닝 비율이 높아지면 불펜의 부담은 줄어든다. 또 이닝을 많이 소화한다는 건 효율적인 투구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야수진들이 수비 시간도 줄어지고, 이는 타석의 집중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련함'의 양현종과 '빠름'의 터너가 이닝 능력까지 과시하면서 KIA의 6월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달의 투수상 도전

류현진 31일 메츠 상대
5월 마지막 경기 등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뉴욕 메츠를 상대로 이번 달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마지막 등판에서도 호투하면 생애 첫 이달의 투수상 수상이 유력해진다. 류현진은 31일 오전 11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메츠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최근 기세는 매우 좋다. 류현진은 올 시즌 10경기에서 7승 1패 평균자책점 1.65를 올렸다. 28일까지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고, 다승은 내셔널리그 공동 선두다. 류현진은 5월 한달간 5경기에서 4승 평균자책점 0.71의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다. 메이저리그는 매달 이달의 선수상을 정한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에서 투수와 타자 한 명씩을 뽑는다. /연합뉴스

아르헨을 꺾어라

한국 U-20 축구대표팀
내일 F조 3차전 16강 갈릴길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오는 6월 1일 새벽 3시30분(이하 한국시간) 폴란드 티히에 있는 티히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을 치른다. 2승을 거둔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행을 확정했다. 한국은 역대 아르헨티나와의 U-20 대표팀 간 대결에서 4승 3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전력에서 아르헨티나는 한국에 버거운 상대다.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에 패하지 않는다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패배시 1승 2패(승점 3점) 골득실은 마이너스로 16강행을 장담하기 힘들다. 주장으로 수비라인을 이끄는 페레스가 경고 누적으로 한국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연합뉴스

첼시 유로파리그 우승 아스널 4-1 꺾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2012-2013시즌 이후 6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다. 첼시는 30일(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바쿠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아스널(잉글랜드)에 4-1로 완승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첼시는 후반 시작 4분 만에 프랑스 국가대표 지루가 친정팀 아스널 골문에 헤더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 15분 아자르에게 패스를 건넰받은 페드로가 골문 구석에 공을 꽂아 넣었다. 5분 뒤에는 지루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아자르가 침착하게 성공시켜 점수 차를 3골로 벌렸다. 아스널은 24분 알렉스 이위베의 중거리 슈트으로 한골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후반 27분 아자르는 추가골을 넣으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첼시는 우승 상금인 850만 유로(약 113억원)도 차지했다. /연합뉴스